

보도시점

2026. 10. 1.(목) 14:00

배포

2026. 10. 1.(목) 10:00

국가AI전략위, AI 개발 속도조절론' 관련 세미나 개최

- 프론티어 AI역량과 안전·보안·통제 역량을 함께 빠르게 확보하는데
흔들림 없는 국가 역량 결집 필요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0월 1일(목) 오후 2시 「AI 개발 속도조절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12일 앤트로픽·오픈AI 등 주요 빅테크 수장들이 AI 기술 발전이 통제력을 넘어서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AI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을 발표한 이후, 美·中·UN 등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 [美] 트럼프 대통령, 속도조절론 불수용 및 현 AI경쟁 체제 유지 선언(9.15), AI기업 오찬에서 '자율 규제' 강조(9.29) / [中] 중국 외교부 대변인, "AI개발 속도조절론은 공포 조장·악성 경쟁을 부추기는 것"(9.14) / [UN] AI통제 선언문 20개국 채택, 美·中 불참(9.22)

세미나는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 등 위원회 위원들뿐 아니라,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등 관계부처, AI안전연구소·한국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등 유관기관·협회를 포함해 70여명이 현장에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1부에서는 국내·외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졌다. 기조 발제를 맡은 이원태 보안특위 위원장은 "글로벌 프론티어 AI 개발 속도 조절론과 대한민국 AI의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요국이 자국 환경에 맞춰 추진 중인 대응 전략을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프론티어 역량과 안전·보안·통제 역량을 함께 빠르게 확보하는 '속도 책임론'을 강조하였다.

송실대 AI안전성 연구센터장 최대선 교수는 "AI발전의 위험과 통제"라는 주제로 현재 활용 영역 중심의 고영향 AI, 연산량 중심의 첨단 AI 등 기존

제도로는 추후 가파르게 확장되는 범용성, 예측 불가능성을 띠는 프론티어 AI의 위험을 통제하기 어렵다며 기술적·제도적 대응 검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업스테이지 김성훈 대표는 “업스테이지 solar는 왜 전력으로 달리고 있나”라는 주제로 “AI는 초지능(Super Intelligence : SI)을 넘어 스스로 진화하는 AI(Self-Improving Super Intelligence : SI²)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며, 국내 속도 조절은 글로벌 빅테크와의 기술 격차를 고착화하고 종속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우리도 자기진화 수준의 기술을 먼저 확보한 다음 글로벌 추세에 맞춘 안전장치 마련 등 속도 조절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울 에임인텔리전스 부사장은 “속도조절론과 우리나라 AI 산업·보안 역량”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AI보안 역량과 기업의 대응 현실을 소개하고 국내 독립적 모델 평가 및 통제 능력 확보와 국제 공조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2부에서는 1부 발제자와 함께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가 추가로 참석해 자유로운 패널 토론과 현장 질의 응답이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 주요국 정책과 국내 환경을 고려한 속도 책임론 이행방향, △ 글로벌 빅테크와 기술 격차를 좁히고 국내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책, △ 첨단 AI 위험의 평가·통제, 안전 검증 체계 구축 방향, △ 기업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정우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최근 AI 개발 속도조절론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와 국내·외 담론이 혼재되어 있지만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AI 핵심 공급망 확보’와 ‘AI 3강 도약’에 있어 안전한 프론티어 AI역량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항”이라며, “이러한 격변기일수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굳건히 결집해 우리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위원회가 구심점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조율을 지원함으로써 가파른 기술 추격과 함께 선제적 보안 대응이 균형 있게 추진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데이터·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유경태 (02-2224-4131)
		담당자	사무관	강영근 (02-2224-4138)